

승촌보에 불법 물놀이 시설... 돈벌이 하는 수자원공사

자회사 통해 그린벨트 부지에 설치해 버젓이 영업 상인들에 몽골텐트 100만~200만원 받고 분양도 비영리 허가 수익 사업 ... 말썽나자 입장료 안 받아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영산강 승촌보 공원 내에 자회사가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영리 행위에 나서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특히 영리 행위가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비영리' 시설이라며 관할구청에 물놀이 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수익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을 도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는 지난 11일부터 영산강 승촌공원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영산강문화관 등 4대강 문화관을 운영하고 친수 관광·레저사업을 벌이는 워터웨이플러스는 앞서 남구정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야외수영장 개설과 운영을 허가받았다.

허가된 면적은 승촌동 572-2번지 외 7필지(2400㎡)이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비영리 사업을 전제로 하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워터웨이플러스 측은 허가 받은 뒤 방침을 변경, 입장객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운영을 하는 등 본격적인 수익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장객에게 입장료(5000원) 뿐 아니라 수영

복, 선배드(7000원), 파라솔(1만5000원), 평상(3만원), 텐트(6만원) 등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측은 또 물놀이 시설 주변에 50여개의 몽골텐트를 설치해놓고 지역 상인들에게 100만~200만원씩 받고 분양해 즉석 조리 음식물 판매까지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인 A(45·나주시 영산동)씨는 "물놀이 시설 운영 기간 중 장사를 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측 관계자들에게 200만원을 줬다"며 "한국수자원공사측

도 사전에 자릿세를 거두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그러나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 일부에 대해 오늘 철거조치를 내렸고 위생점검을 한 뒤 일부 시정 요구를 했다"면서 "입장료는 더는 거두지 않기로 했고, 영리 목적의 행위에 대해선 좀더 조사해본 뒤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시설 허가를 취소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 관계자는 이와관련, "4대강을 홍보하고 승촌보 일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5000원을 받던 입장료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더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입장료 '없던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가 지난 11일부터 남구 승촌보(우안) 승촌공원 내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 시설 모습. 작은 사진은 워터웨이플러스측이 받아 온 입장료 등 이용료 현황.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양심 판 대학교수들

연구비 빼돌려 가전제품 구입 광주지역 교수 등 9명 입건

정부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비로 개인용 가전제품 등을 구입한 광주와 서울지역 대학교 교수 7명과 연구 기자재 납품업체 직원 2명 등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뒤 노트북·에어컨·냉동고 등을 개인적으로 사들인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광주 모 대학교 교수 A(48)씨 등 광주·서울지역 교수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연구용역과 관련된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준 과학기자재 납품업체 직원 B(4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 초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연구비 2700만 원을 노트북·TV·에어컨 등 개인용 가전제품이나 생활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부 지원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받은 연구비로 구입해서는 안되는 개인용 가전제품·명절선물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공동주택 관리비 감사반 구성 광주시 남구

광주시 남구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부실에 따른 입주인 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 특정감사반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시민감사관 3명과 담당부서 공무원 2명으로 이뤄진 공동주택 특정감사반을 구성했다.

공동주택 특정감사는 전체 입주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요청할 경우 실시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동거남 키우던 개 몰래 팔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동거남이 키우던 개와 염소를 도매업자에게 팔아치운 40대 여성이 경찰서행.

○→1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송모(여·46)씨는 지난 4월 말께 동거중인 광주시 동구 용연동 정모(54)씨 집에 가족도매업자를 데리고 가 마당에 있던 개 3마리와 염소 1마리를 '계 것인양' 넘겨주고 20만 원을 받아 가보겠다는 것.

○→송씨는 정식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의 추궁에 "1년 넘게 동거하던 정씨와 헤어지려는 상황에서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보복운전 단속' 잇선 따로 현장 따로

경찰청장, 신고 즉시 단속 지시 했지만 광산경찰 전담팀 "바쁘다" 처리 늦춰

경찰서 보복운전 수사 전담팀이 다른 강력 사건을 이유로 교통경찰이 넘긴 보복 운전 사건 처리를 늦추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청이 전담팀을 만들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보복 운전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달라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경찰청장은 16일 다른 운전자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안전 운전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김씨를 지난 3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복 운

전'을 한 혐의를 확인했기 때문에, 전담팀이 아닌 교통조사계가 수사를 도맡았다. 관련 혐의를 확인한 뒤 전담팀으로 했던 광산경찰 내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에 넘겼으나 '바빠서 처리할 수 없다'는 거절성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보복운전은 차량을 흉기로 활용한, 불법성이 강하고 위험이 큰 폭력행위"로 규정, 교통경찰이 아닌 형사계에 전담팀을 두고 신고 접수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경찰은 애초 '난폭운전을 한다. 음주운전

같다'는 피해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 김씨를 붙잡은 뒤 조사 과정에서 불법택시 영상을 토대로 보복 운전 혐의를 포착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15분께 면허도 없이 나주시 노안면 학산삼거리에서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호반아파트 앞 도로까지 10km 가량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허모(48)씨가 몰던 택시를 쫓아가며 6차례 고의로 급정거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담팀이 관련 수사를 늦추면서 교통경찰이 김씨를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한 시기도 늦어졌다는 게 광산경찰 해명이다.

광주경찰청장 관계자는 "보복운전 전담팀이 수배자 검거 전담팀 임무도 병행하고 있는데, 최근 또 다른 강력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여력이 부족해 그렇게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학생들 꿈과 끼 찾아 여수로

155개교 1만여명 참석 행복학교 박람회 개막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초·중·고 학교교육의 최대 축제 '2015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가 16일 여수시 세계박람회장에서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17개 시·도 교육감을 비롯해 교원·학생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신진국의 대열에 우리도 함께 하며 스스로 묻고 대답을 찾아야 할 정점에서 새로운 교육을 짜야 한다"며 "질문하는 교실, 해답을 가르치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학생 안에 내

재된 꿈과 미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해양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미항 여수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행복학교박람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며 "교육 현장의 바람직한 사례를 공유해 더불어 발전하는 공교육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부터는 학교별 부스와 체험 부스가 문을 열면서 박람회 곳곳은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과 교직원, 교육관계자, 일반 시민의 발길이 쉼 없이 이어졌다.

행복학교박람회는 18일까지 3일간 전국 교육과정 우수학교 155개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꿈과 끼가 드러나는 각종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7층 상가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사우나〉

안보회관 앞 (구호전 사거리)

- 유동인구 많음
- 인테리어 시공완료

사우나 직접운영시 (월수익 1,800만!!)

월수익 (950만) 매매가 (14억) (보 2억 용 6억)

① 북구 신안동 전대정동 2분 코너 (통20개) 1층상가2개, 통18개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② 용봉동 용봉지구 코너 (엘리베이터있음) 통20개(1층상가2개, 통18개, 주택1개) 매매가 1억

010-7384-7800
010-6670-9800

2층 상가건물 매매

〈나주시 삼영동〉

나주혁신도시 10분! 나주역, 나주시청 7분!

영산중, 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토205평, 건135평)

1층6칸(올임대), 2층(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①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상가건물 7층사우나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14억

② 수원동 수원지구 4층상가 85평 월수익 180만 매매가 4억천

③ 상무지구 수림오지 6층(3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5천만

④ 서구 생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⑤ 상무지구 정면오지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지(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⑦ 광양 상아아파트 15평 (상가입점지역) 매매가 4천만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5천500만

010-6832-9700
010-7384-7800

법원경매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1. 북구 본촌동 (토 177평, 건 219평) 감평가 13억8천 - 최저가 7억7천(식당)
2. 광산구 월계동(토 42㎡, 건 135㎡) 감평가 2억 - 최저가 1억4천(점심상가)
3. 서구 차평동 (토 44.77㎡, 건 257.71㎡) 감평가 6억1천 - 최저가 4억3천
4. 광산구 생암동(토 99평, 건 239평) 감평가 2억5천 - 최저가 1억4천
5. 동구 금동 (토 19평, 건 149평)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1억4천6백(9층수영장)
6. 동구 금동 (토 19평, 건 134평) 감평가 4억7천6백 - 최저가 1억7천(9층상가)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1. 서구 화정동(토 150평, 건 276평) 감평가 12억 - 최저가 8억4천
2. 남구 주월동(토 71평, 건 180평)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4억5천
3. 서구 생촌동(토 63평, 건 148평) 감평가 4억9천 - 최저가 4억9천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1. 북구 운암동(토 66평, 건 193평) 감평가 7억2천 - 최저가 7억2천
2. 동구 대인동(토 802㎡, 건 1992.57㎡) 감평가 24억7천 - 최저가 14억
3. 북구 오사동(토 114평, 건 199평) 감평가 4억2천 - 최저가 4억2천
4. 광주 소촌동(토 31평, 건 56평) 감평가 1억6천 - 최저가 1억6천
5. 광산구 남산동(토 259평, 건 150평) 감평가 4억8천 - 최저가 4억8천
6. 서구 생촌동(토 170평, 건 297평) 감평가 4억 - 최저가 3억2천
7. 북구 중흥동(토 207평, 530평) 감평가 13억7천 - 최저가 7억7천

공장/모텔/주유소

1. 광산구 정덕동(공장) 토 474평, 건 478평 감평가 7억1천5백 - 최저가 7억1천5백
2. 전남 장성 북이면(토 2825평, 건 1614평) 감평가 41억 - 최저가 15억
3. 광산구 생암동(숙박시설) 토 154평, 건 419평 감평가 15억 - 최저가 15억

010-7384-7800

(주)대신경매

추천 특수물건

1. 동구 수기동(근린시설) (토 130평, 건 319평) (1층, 청고, 숙박, 2층~3층, 소매점, 4~5층, 사무실) 감평가 10억7천 - 최저가 7억5천

2. 북구 운암동 (근린시설) (토 160평, 건 283평) 개발기회추천, 투자적합 (1층상가, 음식점, 사무실 2~3층사우나) 감평가 8억5천 - 최저가 5억9천7백

3. 광산구 남산동(근린시설) (토 285평, 건 140평) (1층, 제조업, 냉동창고, 2층사무실, 연구실) 감평가 4억8천 - 최저가 4억8천

4. 서구 화정동 (나이트) (토 800평, 건 2567평) 광전터미널일 최고위차, 투자적합 감평가 97억 - 최저가 97억천

5. 북구 운암동(근린시설) (토 66평, 건 194평) (토 66평, 건 194평) (광업과 복속 5층건물) 감평가 7억2천 - 최저가 7억192천

010-6670-9800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 실전 교육되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본 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 개발기획까지

원스톱강의

062-382-5500
010-6832-9700